

■ 괴운(槐雲) 칼럼



공직자와 사불삼거(四不三拒)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우리는 예로부터 청렴하고 청빈한 생활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으며 특히 공직생활에서 불문율(不文律)로 여겨 왔다. 우리 역사상의 황희정승을 비롯한 여러 청백리상들의 많은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늘은 조선 영조 때 호조서리(戶曹書吏)를 지낸 〈전설의 아전(衙前)〉으로 부르는 김수팽(金壽彭)의 사불삼거(四不三拒)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내용은 이수광이 쓴 책 ‘조선의 방외지시(方外志士)’에도 나온다.

한번은 호조판서가 바둑을 두느라고 공문서 결재를 미루자, 아전인 김수팽이 대청에 올라가서 판서의 바둑판을 확 쓸어버렸다. 그리고는 마당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졌으나 결재부터 해달라”고 하니 판서도 죄를 묻지 못했다. 또한 김수팽이 숙직하던 밤에 대전 내관이 왕명이라며 10만금을 요청했다. 그는 시간을 끝다가 날이 밝고서야 돈을 내주었다. 야간에는 호조의 돈을 출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내관이 사형에 처할 일이라 생각했으나 영조는 오히려 김수팽을 기특하게 여겼다.

김수팽의 동생 역시 아전이였다. 어느 날 그가 아우의 집에 들렀는데 마당 여기저기에 염료통이 놓여 있었다. “아내가 염색업을 부업으로 한다.”는 동생의 말을 듣고 김수팽은 염료통을 엮어버렸다. “우리가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데 부업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라는 것이냐?”며 화를 냈다. 이와 같은 김수팽의 일갈(一喝)에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청빈한 정신이 담겨 있다.

평소 김수팽은 ‘사불삼거(四不三拒)’를 불문율(不文律)로 삼았다고 한다. 이는 관리가 재임 기간에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四不)와 꼭 거절해야 할 세 가지(三拒)이다. 먼저 4불은 (1) 부업을 하지 않고 (2) 땅을 사지 않고 (3) 집을 늘리지 않고 (4)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 조선조 연산군 때 풍기군수 윤석보(尹碩輔)는 아내가 시집을 때 가져온 비단옷을 팔아 채소밭 한 대기를 산 것을 알고는 사표를 냈다. 조선조 중기 대재학 김유(金樸)는 지봉 처마 몇 치도 못 늘리게 했다.

다음은 꼭 거절해야 할 3가지이다. (1) 윗사람의 부당한



이탈의 책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 권일웅

프로파일링의 살아 있는 역사 권일웅,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이자 범죄학 박사다. 2018년 8월에 출간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은 범죄 수사 전문가 권일웅 동국대 교수가 소개하는 실제 사건 기록 일지다. 1989년 형사기동대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후 형사와 현장감식요원을 거쳐, 2000년부터 프로파일러로 활동을 시작했다.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 경찰수사연수원 교수(프로파일링, 강력수사 담당) 등을 역임하며 경찰 최초 프로파일링 팀의 창설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17년 현직에서 물러나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흔히들 천사와 악마는 한 차이 있다고 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악하게 만들었을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곤 했던가. 그 알기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연쇄살인, 존속 살인, 정부 살인, 문지마 살인, 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범죄, 증오 범죄 등 ‘범죄자’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프로파일러’다. 텔레비전에서는 범죄 관련 프로그램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인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편집국장 권행완



생활속의 **한방건강**

긍정에너지와 건강 ④

8. 참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

‘바르게’의 긍정적 주체는 원천적으로 ‘뇌’에 있다. 긍정에너지는 실재의 정성적 지각과 그것의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 감정 및 본능을 담고 있는 뇌의 본질적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내 머리에는 ‘생각의 뇌’, ‘감정의 뇌’, ‘본능의 뇌’가 다르게 위치하여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내가 나의 어떤 뇌를 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지각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사람에 따라 3개의 뇌 중 더 또는 덜 발달된 뇌를 가지게 된다.

1) **생각의 뇌**

정상적인 상태에서 생각의 뇌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진위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작동한다. 사실은 실재하는 객관적인 것이고,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본질을 파악하는 철학이나 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과학 등은 ‘생각의 뇌’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1) **사실의 인지**

어떤 사실에 대하여 환상이나 착각 없이 바라보며, 관찰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참이면 옳거나 맞고, 거짓이면 틀리다. 이러한 참의 실재에서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 멋진 모습으로 그려낼 수 있는 개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긍정의 핵심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될까? 어떤 것들이 누군가에게 불편이나 고통을 줄지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2) **가치의 판단**

삶에서 가치는 도덕이나 윤리적 잣대에 의하여 그 수준이 결정된다. 도덕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면, 윤리는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지켜야할 선택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가치의 판단은 당사자 수준에 따른 눈빛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사람에 따라 ‘같은 또는 다른’ 가치로 나타난다. ‘다름’과 ‘틀림’은 다른 뜻이라는 것을 잘 알고 깨실 것이다.

삶에서 또는 인간관계에서 ‘선-악’은 가치의 핵심이다. 실재를 키우는 선과 실재를 파괴하는 악의 본질을 바라보는 자체가 참의 속성이다. 이렇게 선에서 인류의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찾는 것은 물론, 악에서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요인을 찾는 것이 긍정에너지의 기본이다.

동양철학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선하게 태어난다는 맹자의 성선설과 또한 악하게 태어난다는 순자의 성악설은 실재하는 사람의 본성을 각각 다른 면에서 바라보았다. 성선설은 타고난 좋은 선을 키워야 한다



권 희 완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주) 건강중심 바른자세진흥원 원장

는 것이며, 성악설은 타고난 악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구약이 시작되는 창세기 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는 것을 경계했다. 선악과는 인간들 위에서 인간의 행위에 기준을 주는 하나님의 나무에 열린 열매이다. 인간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 선악을 판별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균형이 나 고통이 오게 된다는 것을 경고했다.

‘악’은 선이고, ‘독’은 악일까? 단순 논리로 판별할 수 없다. 그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약과 독은 성분에서 농도의 차이가 있다. 인간의 병이 매우 심할 때 사용하는 극약 처방은 소량의 독이다. 독에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므로, 역기능의 전환 관리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긍정에너지이다.

2) **감정의 뇌**

감정(感情)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다. 생각보다는 감정의 변화 폭이 크다. 그래서 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 무뎠해 질 수도 있다. 참고로 감정(感情)은 마음에 연쫄음이 있어서 화를 내는 감정(感情)과는 다르다.

감정은 어떤 것을 지각할 때, 개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 전체 모습에 대한 평가가 ‘좋다-싫다’ 또는 ‘좋다-나쁘다’로 나타난다.

좋은 감정의 에너지는 맑음, 밝음, 따스함으로 표현되고, 어떤 대상이나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 좋은 감정은 우리의 마음이나 몸을 따스하게 만드나. 따스하다는 것은 소통이 잘되거나 흐름이 원활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당연히 긍정의 에너지는 좋은 감정이다. 어떤 대상이 없어도 평소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긍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 한다. 정서(情緒)는 특정 대상이 없어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으로 나쁜 감정은 탁함, 어둠, 차가움으로 표현된다. 나쁜 감정의 에너지는 차갑기 때문에 정제되어 있기 심상이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매사에 무덤덤한 상태가 되어간다. 삶의 활력도, 건강도 잃어간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뇌’가 메마르지 않도록 잘 보듬어야 한다. 문학과 예술 등은 ‘감정의 뇌’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3) **본능의 뇌**

본능의 뇌는 생명과 건강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작동한다. 그러므로 본능의 뇌는 몸의 건강함과 지속성에 관심을 갖는다. 긍정 에너지는 내 삶의 건강함과 지속성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운동과 식품 등



은 ‘본능의 뇌’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반면에 부정적 에너지는 내 생명의 유지에 회의를 품거나, 또는 나의 생존이나 장난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에 초점을 가질 수 있다.

■ **이탈의 시**

아버지의 쌀 한 톨

/권달용 시인

논매고 피 땀고 비료 주고
가뭄에 죽고 홍수에 휩쓸린 벼를
한숨으로 일으켜 세운

등뼈가 휘도록 일해 거둔 벼가
가마니로 정미소로 들어가
드디어 쌀이 되어
와야아 쏟아져 나올 때

그 자르르 윤기 도는 하얀 쌀을
돌덩이 같은 손으로 받아들고
이로 꼭 깨물어 씹어보고는
흐느끼듯 가슴으로 씹 웃으시던

아버지의 그 쌀 한 톨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2차)

회원 여러분의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일정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싹 움트는 소리, 훈풍 불어오는 소리, 새들 합창하는 소리 또 다시 봄이 온다네!!!

회 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권오윤) : 010-9027-6179 총 무 권순휘 : 010-3797-1874

2022년 3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오준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 새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월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봄처럼, 소소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2년 3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2022年 2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01.26. ~ 02. 22.
총 납부자 25명, 지사·지국 1곳

(이름순)		단위:원	
❖권용덕	30,000	권순철(서울강동)	30,000
권경식(청주)	30,000	권영규(서울강남)	30,000
권기항(대구)	30,000	권영락(대구 달서구)	30,000
권남주(부산)	30,000	권영직(안동 옥동)	30,000
권동술(합천)	30,000	권오갑(양주)	30,000
권민호(산청)	30,000	권오성(청양)	30,000
권봉철(전주)	20,000	권용기(서울강남)	30,000
권상우(군위)	30,000	권용일(서울구로)	30,000
권석조(대구)	30,000	권정태(합천)	30,000
권선기(정읍)	30,000	권정환(상주)	30,000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810,000원	